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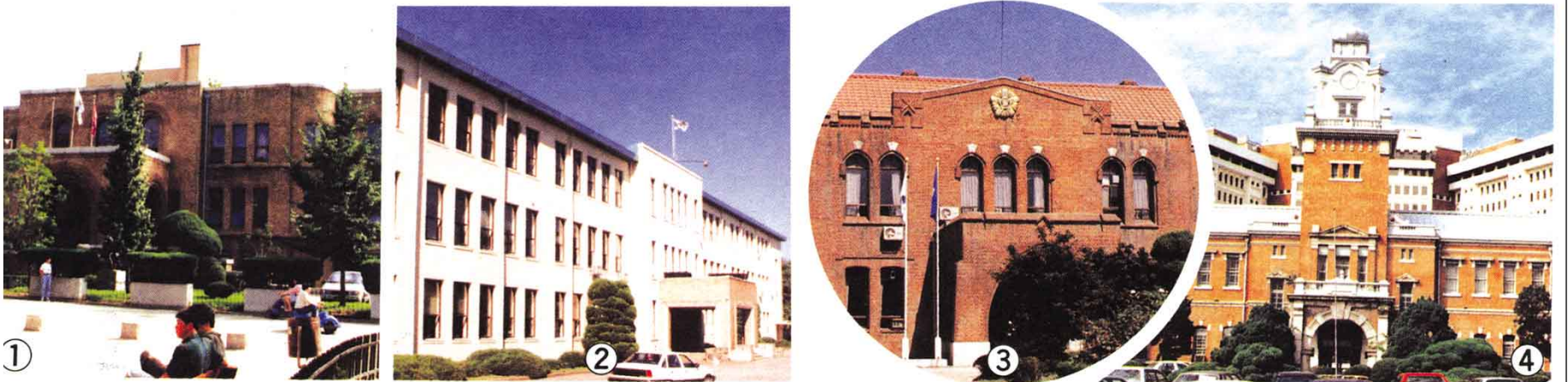
發行人 崔 主 鎬 鎬
編輯人 李 聖 瑞
印刷人 崔 鎬 泳

發 行 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 銀行지로番号 : 7500875
•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관악의 靈峯아래 새로운 飛躍을...



綜合大學校로 발족한지 오는 10월15일로 44주년을 맞는 冠岳캠퍼스의 偉容. 아래 寫眞은 ① 東崇洞 옛 文理大 본관(현 문예진흥원) ② 水原 農大 본관 ③ 乙支路6街의 師大(현 헌법재판소) ④ 醫大의 상징물인 시계탑 건물.

冠岳春秋

10월 15일은 母校가 國立 서울大學校로 출발한 지 44주년이 되는 開校紀念日이다. 光復 이듬해 여러 單科大學을 한데 묶어 綜合大學 體制로 다시 발을 내디딘 것이 그렇고, 各 單科大學의 뿌리는 깊어 가령 法科大學의 경우 전신인 舊韓末의 官立法官養成所(1895)로부터는 근 백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서 高句麗 小獸林王 2년(372)에 세운 太學에까지 脈을 단다면 실로 천 6백여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늠할 수 있다 하겠다.

어떻게 우리 母校 서울大學校는 先人들이 이른 「首善之地」며 「風化之源」으로 名實함께 「民族의 大學」、「世界의 大學」으로 冠岳의 靈峯 앞에 우뚝 서 있다.

멀리 前身時代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출된 許多人材들이 民族과 國家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學問과 技術面에서도 세계를 울리고 國內의 수준을 능가하게 발전시키는 先頭 구실을 하고 있다. 이로써 母校는 과연 「民族의 大學」이요 「世界의 大學」이라고 몇몇이 自負할 만하고, 그것은 곧 우리의 크나큰 矜持이며 榮光이기도 하다.

근자에 국내 유수한 企業體에서 속속 대규모의 각종 教育研究 시설을 설치함도 母校의 이 제까지의 國家 社會에의 공헌도와 未來에의 期待值의 높음에 연유한이라 하겠다.

사실 이제까지는 우수한 모교 출신들이 수없이 美國 등 외국으로 나가 그곳의 훌륭한 施設과 여건에서 學問과 技術을 고도로 연마하고서도 적극적으로 母校나 國家의 발전에 報本하지 못했던 사실은 몹시 아쉬운 일이었다. 우리의 秀才 들중에는 밖에서 남의 손에 의지한 것이 없어도 國內에서 優秀한 선배들에 의해 마음껏 教育과 研究가 행해진다던 일마나 기쁜 일이었는가. 세계에 나가 크게 자란 선배 學者들이 안으로 들어나와 國家 발전에 직접 이바지하고 後輩 養成에 보탬을 느낄 수 있게

21세기 문턱에 선 母校

하는 施設과 與件 조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뜻에서 昨今의 기업체들의 母校에 쏟는 誠心은 밝은 來日을 점치게 하는 鼓舞的인 일이다. 다만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라도 運營의 뒷받침이 불타르지 않으면 값진 구슬이 진흙 속에 묻히는 격임을 念頭에 두시고, 愛情어린 뒷받침의 계속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先輩들의 노력과 社會의 관심도가 이렇게 高調돼 가는데, 작금의 大學內의 질서와 師弟 관계, 勉學 雰囲気은 반드시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는 앞선 20여년간 政府가 大學 運營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함으로써 學則과 教授의 권위가 실 곳을 잃게 되고 入試 制度의 안이한 方便의 처리, 잘못된 語文 政策 등이 얹혀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教育의 基礎基本은 文字 敎育에 있음에, 우리 文化 전통의 傳承 暢達과 漢字 문화권 내의 交流의 뒷받침인 漢字가 初等課程에서부터 계속 가르쳐져야 했을 것인데, 文敎部는 70년대부터 國語 6년간을 한글로만 敎育함으로써 漢字 學習의 適期를 잃어 평생동안 漢字에 자신이 없게 만들어 버렸다. 한글專用 敎育은 글의 배대가 되는 漢字 語를 表音化함으로써 글 내용의 분명한 파악과 語彙의 능률적 확장이 저해되어 學習과 讀書 능률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다. 그뿐 아니라 四肢一型 평가 방식의 變衍과 그 기계적 訓練으로 내용의 체계적인 理解와 文章力 신장이 되지 못하여 實力의 저하와 人間性의 상실을 가져오고 말았다.

국교부터 모든 과목에 適切하게 漢字를 섞어 내용을 분명히 理解케 할 것이고, 大學入試는 유럽에서처럼 3, 4분야에 걸쳐 각 분야에 1~2시간씩 論文을 쓰일 것이다. 그리할 때 敎育은 정상화하고, 實力있고 思慮깊은 人間形成이 가능하여, 大學新入生의 基本資質이 괄목하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될 때 母校는 내실을 기하고, 근자 활발히 전개되는 國際間的 교류와 大企業들의 고마운 성의의 相乘으로 질서가 바로잡히고 勉學 雰囲気가 극대화하여 밝은 21世紀를 열게 될 것이다.

親睦登山大會 참가신청 쇄도

9월말 現在 1천5백명 넘어

科·씨클등 團體 늘어나는 추세

오는 10월21일(日曜日) 거행되는 90년도 同門親睦登山大會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동창회事務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참가를 신청해온 동문수는 우편 접수 1천여명, 전화·방문신청 5백여명, 1천5백명 정도에 이르렀다. 추계대우라면 예년의 3천여명 수치를 넘어 올 동창회는 3천5백명의 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참가신청을 분석해보면 작년에 이어 단체신청이 늘었다는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9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신청을 보면 서울·경기지역을 비롯 각 단과대학의 科·期동문들과 가족단위의 참가신청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대회를 위해 각계의 동문들이 두터이 협력하고 있는데, 협찬품은 모두 당일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가족포함) 전원에 참가할 수 있는 곳에서는 중식·시라와 酒·飲料가, 그리고 성인에게는 이와 함께 포켓용(300g)이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다. 동창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동문들의 편의를 위해 9시정각에 출발, 판

상산계곡을 거쳐 農大學 樹木園광장을 종착지로 했다. 이곳에서 중식을 하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의 정휴시간과 함께 여흥시간이 마련되었다. 참고로 동창회에 참가할 동문들은 도시락등의 준비관계로 늦어도 대회 3일전인 18일까지는 동

창회 사무처에 참가신청을 해야 하며, 준비물은 간단한 복장에 가족단위로 포장용품을 조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리도구정도를 지참하면 된다. 사무처에서는 올해도 역사·어린이들의 귀가편의를 위해 모교측의 협조를 얻어 버스 5대를 光化門까지 운행한 예정이다. 동창회 참가신청서에는 동문가족수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동창회사무처(702-2233)로 하면 된다.

는 회장단을 비롯한 동창회원원 전원에게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8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이 명簿에는 동창회顧問을 비롯, 지난3월 출범한 13대 회장단과 상임이사, 이사, 地方 및 海外지부장, 재단법인 冠岳會會員 그리고 각大學(院)동창회의 연락처와事務담당자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 모교 總長, 副總長, 學·處長을 비롯한 각부서의 안내전화번호와 함께 회장단을 비롯한 동창회원원 전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이달 20일 90년 總會 새 博士 축하회 겸해

母校 教授會館서 大學院 教授會館서

大學院 教授會館서



晉州支部 정기총회 광경

同窓會 1백10차 상임이사회 겸 冠岳會 45차 이사회가 지난 9월6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吳寅泳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상임이사회는 상반기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회관운영상황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이어 기타회의사항을 통해 李聖堯사무처장의 사회로 10월21일 개최되는 同門親睦登山大會에 각 단과대학동창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趙完奎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9월19일 단행된

동림수사부장관에 曹京植 환경처장관에 許南薰등은

3部長官 개편에서 曹京植(59년 商大卒) 동문의 동림수사부장관으로, 그의 고 曹南薰(62년 法大卒) 동문이 환경처장관으로 각각 임명됐다.

신임 曹京植동림수사부장관은 25년간 경제기획원에서 대외경제협력분야

한편 환경처장관에 임명된 許南薰(62년 法大卒) 동문은 고시 司法·行政양과에 합격한 수재 경제관료로 무역박람회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아 93년 大田국제 박람회

가 국제박람회기구로서 공로를 받는데 솜씨를 발휘했다.

한편 환경처장관에 임명된 許南薰(62년 法大卒) 동문은 고시 司法·行政양과에 합격한 수재 경제관료로 무역박람회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아 93년 大田국제 박람회

晉州지부 “再跳躍” 다짐

鄭元壽회장선출 執行部 새로 구성

’90 定總성료

晉州支部의 재결속을 다져주는 90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9월20일 오후 진주시 동남호텔에서 회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주부위원장인 鄭元壽(43년 工大卒·진주간호전문대학) 동문은

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동문의 휴양지인 동창회활동에 해왔지만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이념 90년 정기총회를 계기로 회원간의 친목을 다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1970년 진주지부의 부활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정통을 설명하고, 급변개편한 회정을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구상된 전향위원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출을 비롯한 임원진출을

부활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새회장의 선출된 鄭元壽(43년 工大卒) 동문은 “앞으로 동창회 진

단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주지부의 발전을 위해 의를 다함없는 다짐을 하면서 ‘후후’ 모교발전을 위한 사명을 보다 확고히 하시기에, 무엇보다도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

다 다짐한다. 다음과 같다. ▲회장 鄭元壽 ▲부회장 權淳模(49년 師大卒·진주연일중학교) ▲재무(55년 醫大卒·경상대학교) ▲金貞錫(52년 文

理大卒·경상대학교) ▲ 감사 權哲珍(60년 法大卒) ▲李炳漢(65년 齒大卒) ▲세명치과 원장 ▲송무간사 崔友錫(57년 藥大卒·진주교대교수)

▲許南薰동문 ▲曹京植동문

▲許南薰동문 ▲曹京植동문

▲許南薰동문 ▲曹京植동문

▲許南薰동문 ▲曹京植동문

서울大學校의

뿌리

(27)

韓 基 彦

〈49년 師大卒・母校 명예교수〉

치과대학은 국립서울대학교 창립 당시 노태환 단장 파다하의 밑에서 있었던 독립한 私學으로서 통합된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가 그 뿌리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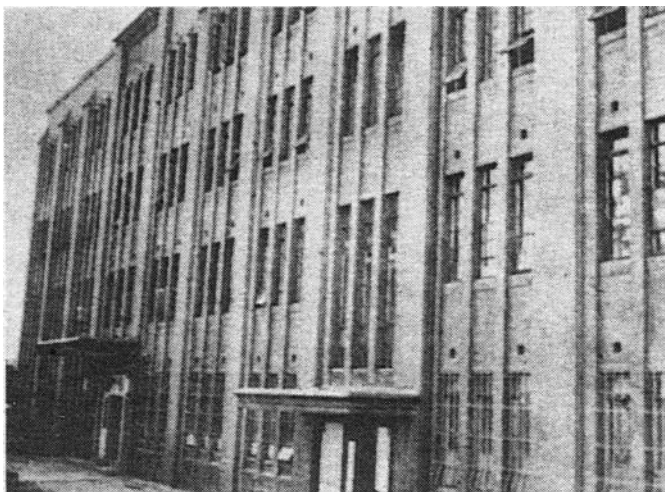
원주로 일제시대부터 사용 해오던 유식체를 교제 하와 45대를 새로이 설치 하였고 현미경도 20대 마 련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설 개선이었다. 치과대학의 교사를 소관(小關)과 지관(池管)의 양친부 신복교사로 승 계된 전임 1969년 12월 8일의 일이다.

齒科大學

規則이 발효되었다고 하 여 京城齒科大學의 설립이 전의 치의학 사정을 묘사 하고 있다. 이어서 齒專時 節의 사정에 대해서 말하 기를, 이 시대의 치과교육 은 독립적인 가미된 일련 시 위주로 한국인 학생은 일본인 학생수의 3분의 1정 도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주치과학을 중시하는 정향 이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 기 위해서도 기초의학연구 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 제시대의 한국인 졸업생들 은 모두 치과임상분야의 중 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해 발을 맞이하였을 때 극적인 국인 기초과학자는 양성되 지 못하였다』고 솔직하게 한국인 치과교육자의 태부 족 현상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한 후의 열 약한 치과교육의 상태로부 터 오늘날의 중추수준에까 지 발전시킨 초창기 치과 교수들의 공적은 매우 크 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金圭植교수도 말 하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나

22년 설립된 京城齒科醫學學校가 연원

유일한 私學으로 母校창립당시 單大로 통합



◇ 小公洞시절의 齒科大學

과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齒科大學要覽』(1989-1990)에 는 치과대학의 설립목적에 대하여 말하 기를 『치과대학은 치과이사와 치의학자를 양성하는 교육 과 치의학 및 그와 관련 된 학문의 연구 그리고 의 구강계와 그와 관련된 인 체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 료하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기여함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고 하였 고. 이어서 치과대학 치의 학과 교육목적 및 목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치의학은 관한 기본적 인지와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치의학의 발전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인물은 초대 학장을 지낸 朴明鎭박사이다. 『서울대학교 40년사』에 기록된 바 齒大 초창기의 양 사상은 이렇다. 『해방 직후 치과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취임한 故 朴明鎭박사를 중심으로 李 有慶・鄭保羅 및 李春根씨 등이 모여서 구 경선과과

腔外科, 保存科, 補綴科의 3 개과에 지나지 않았다.』(上 掲書, 950-951)』는 것이다. 朴明鎭학장의 대해서는 安 炯圭교수가 『을 수 없는 스승』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 다. 즉 서울대학교 발족 시 전임의 적과 찬찬한 데 朴明鎭학장의 절단이크 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을유관보를 전후해서의 상 황에 대해서 그는 말하 기를, 『우리 1942년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의 입학 하와 齒科界의 소식을 듣 게 되자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두 사람의 醫學博士 중의 한 사람으로 학교와 관계를 맺고 계서로 開業 을 하여 齒專이든 말 단 들었음은 일제시대엔지 점 상임한 전임 없었다. 朴明鎭 박사는 8.15 광복 을 맞아 학교는 일제강점 국으로부터 한국인교수들에 의하여 접수되었다고 하 면서 당시 교수진에 연 금하였다. 『이때 朴明鎭선생이 學 長이 되시고 李有慶선생이 부속병원장, 鄭保羅선생이보 철부장, 李春根선생이 구강 의과부장이고 그밖에 朴有 善선생, 金圭植선생(이)의 부에서 오시고 助手, 副手, 副手補 등 전임 선생들을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齒醫學교육의 搖籃으로 乙支路-小公洞 校舍거쳐 69년 현위치로 이전

을를 겪어가며 유지해가 는 형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1946년 서울대학교가 발족함에 朴明鎭선생은당 시 교수들의 협조하에 同窓會의 자선, 韓大와 학생 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齒科大學을 서울대학교에 편 입시키는 대결단을 내리셨 다. 이것은 大勇斷이시었다. 『서울大學校同窓會報』제1 19호)고 전한 대용단이 었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

安炯圭교수는 齒醫學界의 선도자인 朴明鎭학장에 대 하여 찬양하기를, 『학자인 은 현재 우리나 齒科敎育과 齒科界 전반에 걸친 기초를 구축하는데 초석으 로서 다대한 업적과 공적 을 남기셨고 그 분은 학 장의 임무를 맡으시면서 많 은私財을 소비하시고 모 든정열을우리 齒科界의 발전과 후배양성을 위하여 쏟으신 분이였다. 그리고의 명의로 임하고 내면은 유 하시며 인정많은 분이시였 다』고 회고하였는데, 安炯圭교수 또한 이제 故人 이다.

제자인 劉東深교수는 韓 國齒科放射線學의 시조로부 양되는 興儀 安炯圭교수(전 학장, 1923~1998 9)에 대하여 그의 학회 한 학문적 공적과 아울러 치과대학 발전을 위하여기 여한 바 행정면의 공적을 높이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인 여사실을 들고 나 서 말하기를 『그후 1977년부터 1981년까지는 齒科大學長을 역임하시면서 齒醫學교육의 질적향상과 연구공로 애신 등 大學發展 에 많은 기여를 남기셨다. (上掲紙, 147호)』고 하 여 치과교수 3대의 걸친 아들다운 단점을 영모하게 주고 있다.

또한 30주기 기념으로構 內에 세워진 朴明鎭학장의銅像은 齒大의 발전을 오 늘로 큰 기대감으로 지켜 보고 있다고 하셨다.

1953년 8월 28일 서 울 환대와 더불어 다시금 수공예 교사를 사용하게 되 었고 그후 1955년에이 르러 K C A C와 I C A의

金圭植교수는 치과대학의 연사를 말한것 잊고 다함 과 같이 朴明鎭학장에 하 거

한편 산학협약에서도 몇 명 아모리 한국인 치과교육자 들은 치과교육을 계속하 기

하고 있다. 『치의학은 관한 기본적 인지와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치의학의 발전에 있어 가

의학전문학교 교장이로부터 학교를 인수한 京城齒科大學으로 발족하여 194 5년 11월 12일 제1회로 우 리 한국인인교수들이

이러한 국립서울대학교창 설의의 同窓 編入에의대 응하여 관한대기인대, 학

『이때의 장서連載된 문 다 이 이면은 大圖圖를보 게 되셨을 것이다. 『해방이

이 ①中東이 세계의 화약고인
이런 쿠웨이트와 이라크
간의 전쟁으로 또 다시 중
동되었다. 이 지역의 두
危機地帶” 즉 팔레스타인과
페르시아灣에서는 여러차례의
전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팔
레스타인 지역에서 4회에
中東戰爭이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간에 일어났으며, 페
르시아灣 지역에서는 아프가니
스탄戰爭, 이라크-이란戰爭에
이어 지난 8월 2일의 쿠
웨이트-이라크戰爭이 폭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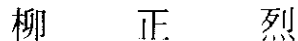
장단, 아라비아, 중앙아시아 등
저녁, 이집트의 북아프리카의
그리스, 아랍, 페르시아, 인도
이슬람교도의 정경이 그려져
있다.

中東에는 이슬람교인들이
있다. 페르시아족으로는
스파르, 이란, 터키 및 아
프리카스파르 4개국으로
이들 제왕하고는 모두가
아랍인이다. 이 아랍인들은
셈족(SEMITES) 중 아랍
아랍인인 아라비아족(A-
RAMAICS)과 셈족의 다른

정권으로 바뀌기 1945
년들 전후해서 대부분의 아
랍국가들이 분할되어 독립케
되었으니, 아랍민족은 오늘날의
분할된 아랍세계를 外勢의分

민족이다. 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아랍 민족의 遊牧共同體를 형성하여 아라비아半島를 중심으로 西로 퍼져 살고 있었으며, 東로 移住한 이슬람교가 창시된 世紀末부터 이를 받아들여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아랍인의 종교로 시조인 이슬람교가 中央아시아와 北아프리카 대륙으로 전파 확산되어서, 예언자 모하메드가 이룩한 이슬람교를 통한 아랍민족의 정치적인 統一의 와요였다.

한 民族共同體로 존재하여 온 아랍 세계는 오스만帝國의 해 1918년까지 수백년 동안 그 지배를 받아왔으며, 이어서 西歐列強의 통치를 지

[illegible]

〈52년 文理大 入學, 在學中
渡美留學・外國語大 교수〉

[illegible]

고 있다. 페르시아灣의 지역적인 세력균형과 내지 패자로서 이란의 팔레비왕이 군림하였던 1970년대에는 이 지역의

하고 나섰으므로, 아랍세력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을새로ուն 세력編成을 예고하

掌握 욕심
예고
國際 현실

民族國家 利益 우선하는 冷嚴한 國際현실

紛爭 紛이 지않는 世界의 火藥庫

팔레비王政 붕괴 후 힘의 空白상태가 近因

割拠치에 그 원인을 두고있다. 오로만帝國治下에서 싹트기 시작한 아랍民族主義는, 아랍統合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왔으며, 오로만의 이르기까지 그 기승을 빌려 약화되어 왔으나 아직도 충실되지 않았으니, 9월초에 발효된 리비아와 수단과의 統合발효도 아랍 통합운동의 한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民族의인 宗教의인 공통성을 지닌 아랍世界, 크게는 中東이지만, 『民族國家體制』가 형성되어, 20개국의各國家는 독립된 政治單位로서 스(BATIN)黨政權과 그후 르시아灣의 패권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아랍世界와 中東의 支配者가 되어보겠다는 것이라 본다. 이번에도 쿠웨이트와 이라크를 각각 자원하는 아랍국가들의 세력형성을 보면, 아랍國의 세력再編成이 또 다시 나타난다. 이들의 離合集散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아랍인정치를 지지하고 나선 아랍국가들이 리비아, 수단, 예멘 및 PLO 정도이며, 이집트, 사우디 및 시리아들을 위시한 10개 아랍국가들이 쿠웨이트를 지지

질서는 유지되었고 전쟁은 없었다. 그러나 팔레비政權이 흥하고 메이革命으로 붕괴되자 지역은 힘의 공백상태에 처하였던바, 1980년에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 세력확장에 나섰던 것이다. 이번 쿠웨이트침공도 같은 戰略線上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랍國內의 패권싸움도 양상은 달랐다. 이것에만 있어서는 해볼만 같지 않다. 이집트는 1960년대는 이집트들을 세운 나일강을 싹 세력과 이라크를 앞세운 티그리스·유수프라테스강을 싹 세력강에

[illegible]

學問도 孤立되선 發展할수 없다

趙完圭 총장 인터뷰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모교가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가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는 世界의 大學으로 應接하기 爲해 지난해부터 세계의 저명 대학들과 학술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학술교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工大, 소련 레닌그라드 한림원등 共產國에까지 넓혀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東京大와 체결한 협정은 단순한 학술교류의 차원을 넘어 국립서울大와 일본국립東京大간의 관계가 광복 45주년을 맞아 새롭게 전개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濠洲「시드니大」와 첫 協定

현재 共產圈포함 5개 大學과 체결

모교 國際 學術교류 現況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레닌그라드 한림원에서 학술교류협정에 조인하고 있는 趙完圭(좌)

정체절후, 10월 8일 東京大學과 協定교류를 체결했다. 현재 共產圈포함 5개 大學과 체결했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에서의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유망성이 있다』
라. 祖國발전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모교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화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金 芳 漢 교수
〈人文大 言語學〉

해방후 언어학연구 1세대로 이분야의 개척자인 金교수는 52년 모교 文理大를 졸업한 이래 지금까지 37년간을 모교와 함께 해왔다. 몽골語를 전공으로 하는 金교수는 최초의 국어계통에 관한 단행본인 『韓國語의系統』을 펴냈으며 현재 한국언어학회장과 한국알타이학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한국어의 뿌리를 캐는 작업에 남다른 학문적 업적을 남긴 金교수는 『앞으로 시간은 많이지겠지만 그간 쓰고 싶었던 책들을 쓰려면 오히려 더 바빠질 것 같다』면서 연구와 저술에는 은퇴나 停年이 있을수 없음을 강조한다.

부인 高昌姬여사와의 슬하에 4男을 두었는데, 매일 아침 차를 직접 다려 마시는 茶道人이기도 하다. 막 집필을 끝낸 『語源論』의 출간을 기다린다고.

“한국어 뿌리 연구에 큰 공헌”



張 仁 協 교수
〈社會大 社會福祉學〉

51년 모교 文理大 영문학과를 졸업한후 사회사업에 관심을 갖게돼 사회사업학을 연구한 張교수는 61년부터 모교에 봉직해왔다.

근 30여년간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를 해오면서 사회사업 실천방법론, 개별지도론 그리고 아동복지학분야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오늘날 국내 사회복지학의 발전이 張교수의 「십자가를 짊어진 선구자적 역할」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 주위의評.

YMCA 청소년위원회 위원,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이사 등의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고 지금도 아산사회복지사업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퇴임후에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라고.

“국내 社會福祉學의 선구자”

停年退任 교수의 한마디

- … 반평생을 母校 강단에 바쳐온 일곱분의 교수가 …○
- … 지난 8월31일 정년퇴임했다. 學問연구와 後學 …○
- … 육성에 전념해온 元老 교수의 노고를 치하하고 …○
- … 이분들의 獻身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한마디 …○
- … 의 말씀을 받아 실는다. 〈大學順〉 …○

“실증적 史學연구풍토 개척”



閔 錫 泓 교수
〈人文大 西洋史學〉

서양근대사연구에 있어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閔교수는 48년 모교 文理大를 거쳐 61년 문리대 부교수로 부임했다.

한국 史學界는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고 다양한 견해에 대한 포용력이 결핍돼 있다고 지적하는 閔교수는 『역사가 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한편의 드라마같다는 점에 매료

돼 史學者의 길을 택했다』고. 평소 「오디오파」이라고 불릴만큼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閔교수는 문학·철학에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퇴임후에도 청탁받은 원고를 쓰는 등 집필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며 사학자로서의 활동도 부단히 계속할것 이라고.



邊 太 燮 교수
〈人文大 國史學〉

49년 모교師大를 졸업,56년부터 모교강단에 선이래 35년간을 봉직해온 邊교수는 『韓國史를 공부한 것이 매우 흡족하다』는 말로 퇴임소감을 대신했다.

「國史의 대중화」와 「歷史敎育」을 신념으로 우리나라 국사학계를 이끌어 온 邊교수는 武臣亂과 무신정권이 한국사에 있어서 획기적이고도 전환기적 사건이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퇴임후에는 저술활동을 계속하며 「韓國史大辭典」편찬을 준비하겠다고. 한편 국사학회에서는 邊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韓國史論」특집호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著書 「한국사통론」은 李基白교수의 「한국사신문」과 함께 특색있는 한국사 개설서로 꼽히기도 한다.

“韓國史 분야의 獨步의 존재”



金 東 勲 교수
〈工大 金屬工學〉

金교수는 50년 모교 工大를 졸업한후 금속조직학 및 금속상변태론분야에 주요업적을 쌓으면서 40여년을 모교에서 생활했다.

『6.25전쟁 뒤 대학의 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새학문 수용의 가교역할을 했던 점』을 보람으로 생각한다면서 『모교의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연구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바람도 피력한다.

平南平原출신의 金교수는 금속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취미로는 수영을 즐긴다고. 金교수는 학창시절 수영선수를 지내기도 했다. 생활에 있어 「순리를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金교수의 저서로는 「금속조직학」 「금속相變態」등이 있다. 화랑무공훈장을 수상.

“戰後 모교再建에 건인자役”



安 守 漢 교수
〈工大 土木工學〉

항만공학분야에 있어서는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권위자 安교수는 25년 경남 양산출생으로 日本 東京大를 나와 54년부터 모교에 재직해왔다.

『과학자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그쳐서는 안되며 이것은 曲學阿世와 구별돼야 한다』는 安교수는 국제적인 학회활동을 통해 국내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安교수는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울산항만실험, 남강댐실험, 사천방수로실험 그리고 85년의 한강종합개발의 참여등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해왔다.

安교수는 『이제는 하천개발보다는 항만쪽으로 관심을 돌릴때다. 퇴임후에 경기만의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해보고 싶다』고 퇴임의 변을 대신한다.

“經濟開發 계획에 中樞역할”



鄭 寅 峻 교수
〈工大 土木工學〉

『이제 조금 알만하니까 떠나게 돼서 아쉽지만 아직은 후임자가 없어 계속 강의를 해야할 상황이라 퇴임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鄭교수는 53년 오사카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30년째 모교 강단에 서왔다. 安교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토질역학」을 강의했는데 다음날 강의할 내용은 사전에 꼭 읽어보고 확인할 정도의 세심함을 갖추고 있다.

자신이 가르친 後學들이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는 자신에게 인사를 해올때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는 鄭교수는 『대학은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 만큼의 의미를 찾는 곳이며 특히 서울대 출신은 졸업후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를 점하게 되므로 기술자로 안주하기 이전에 인간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講義자세 세심하기로 定評”

年會費내주신분

일만 8월15일 ~ 9월15일까지
이사 8월15일 ~ 9월8일까지

人名 및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理事

◇家政大學

▲金慶香 89 金희영고
▲金花子 89 金희영고
▲李善子 89 주부

◇工科大学

▲姜信珪 89 현대노동대
▲姜日求 89 과학기술원
▲金宗현 89 동신소재사

▲高源鎭 89 대한화학사
▲高重明 89 현대건설고

▲郭三榮 89 빙그레전부
▲郭三榮 89 빙그레전부

▲金完珠 89 현대한글문
▲金定萬 89 흥동개발사

▲金正中 89 삼미정공전
▲金知德 89 법한화재한

▲金弘植 89 한일건설사
▲文樹東 89 여수에너지

▲朴佑炳 89 국회의원
▲白英鶴 89 전자통신연

▲金士吉 89 원도지전주
▲金士吉 89 원도지전주

▲宋振煥 89 한일화학유
▲宋振煥 89 한일화학유

▲宋興斌 89 금성정밀기
▲宋興斌 89 금성정밀기

▲宋在信 89 대우조선업
▲宋在信 89 대우조선업

▲尹英根 89 대일전통연
▲尹英根 89 대일전통연

▲李基和 89 태광산업사
▲李基和 89 태광산업사

▲李範鎭 89 한국종합개
▲李範鎭 89 한국종합개

▲李善一 89 동양철관사
▲李善一 89 동양철관사

▲李承雨 89 종합건축설
▲李承雨 89 종합건축설

▲曹漢根 89 성남건설부
▲曹漢根 89 성남건설부

▲李炳賢 89 신시아교의
▲李炳賢 89 신시아교의

▲李炳賢 89 신시아교의
▲李炳賢 89 신시아교의

◇農科大学

▲朴容錫 89 백화양조사
▲宋在寬 89 바에병원이

◇文科大學

▲申東壽 89 동원진흥회
▲沈載德 89 동서철기사
▲李參雨 89 기정산도원

▲鄭址賢 89 금성인사
▲許信行 89 한국농경

▲姜賢旭 89 전북도지사
▲金駒 89 금공교역상

▲金永玉 89 한국사연사
▲金鍾協 89 동덕여대총

▲盧在鳳 89 청와대비서
▲朴鳳煥 89 대한준해보

▲朴世熙 89 서울대자연
▲朴贊孝 89 한국기술개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申禹植 89 서울신문사

◇美術大學

▲李烈模 89 삼관관대미
▲金烈模 89 삼관관대미

◇法科大学

▲姜尚烈 89 한국토지개
▲姜尚烈 89 한국토지개

▲金錫營 89 태평양중합
▲金錫營 89 태평양중합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金順熙 89 대한부자금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직未納동문께서는 이달 말까지 솔선하여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一 會費내역一

· 一般會員	 1만원
· 理 事	 5만원
· 常任理事	 10~20만원
· 監 事	 30만원
· 副 會 長	 50만원
· 會 長	 100만원

◇師範大學

▲姜晃圭 89 인하대사대
▲金相玉 89 청추교육대

◇商科大學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金善陽 89 인하대사대

◇音樂大學

▲金鳳任 89 김희대음대
▲金鳳任 89 김희대음대

◇醫科大學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姜來烈 89 강안과의원

◇獸醫科大學

▲金晉榮 89 국회의원
▲金晉榮 89 국회의원

◇藥學大學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姜 賢 89 크라운제약

◇商科大學

▲李泰成 89 강원신문
▲李泰成 89 강원신문

◇商科大學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李海旭 89 한국전기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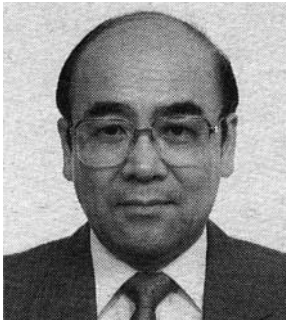


가을에 들어서면서 유년해와 함께 건강관리도 가을에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을은 신체기능이 가장 활발한 계절로, 체온이 높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나 가을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가을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換節期の 건강관리

출처: 의학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과 운동이 중요하다. 또한 가을에는 체온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나 가을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가을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은 가을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을에는 체온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나 가을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가을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金建烈
(59년 醫大卒・모교 內科 교수・보건진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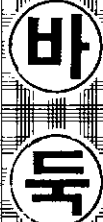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의해진다. 가을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가을에는 체온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나 가을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가을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세균성 呼吸器질환 조심해야

過飲過食 피하고 規則적인 운동은 抗老化 효과

세균성 호흡기 질환은 가을철에 많이 발생한다. 이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과음과 과식은 건강에 해롭다. 규칙적인 운동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을에는 체온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나 가을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가을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趣味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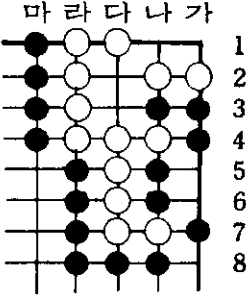
姜哲民

61년 商大・프로 7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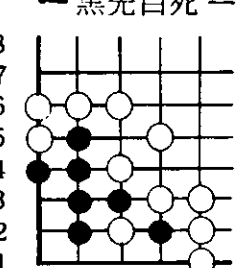
한국 바둑계의 重鎮인 姜哲民(프로 7단)이 朴治文(프로 9단)의 뒤를 이어 본문을 집필합니다. 계속적인 愛讀을 바랍니다.

爛柯

바둑이란 다른 말로 '爛柯'라고도 한다. 이는 바둑판이 썩어 버린다는 뜻이다. 바둑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게임이다. 바둑을 두는 것은 지혜와 전략을 필요로 한다.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 바둑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준다. 바둑은 우리의 삶을 더有意義하게 만든다.



문제 1



문제 2

가을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을에는 체온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러나 가을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가을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